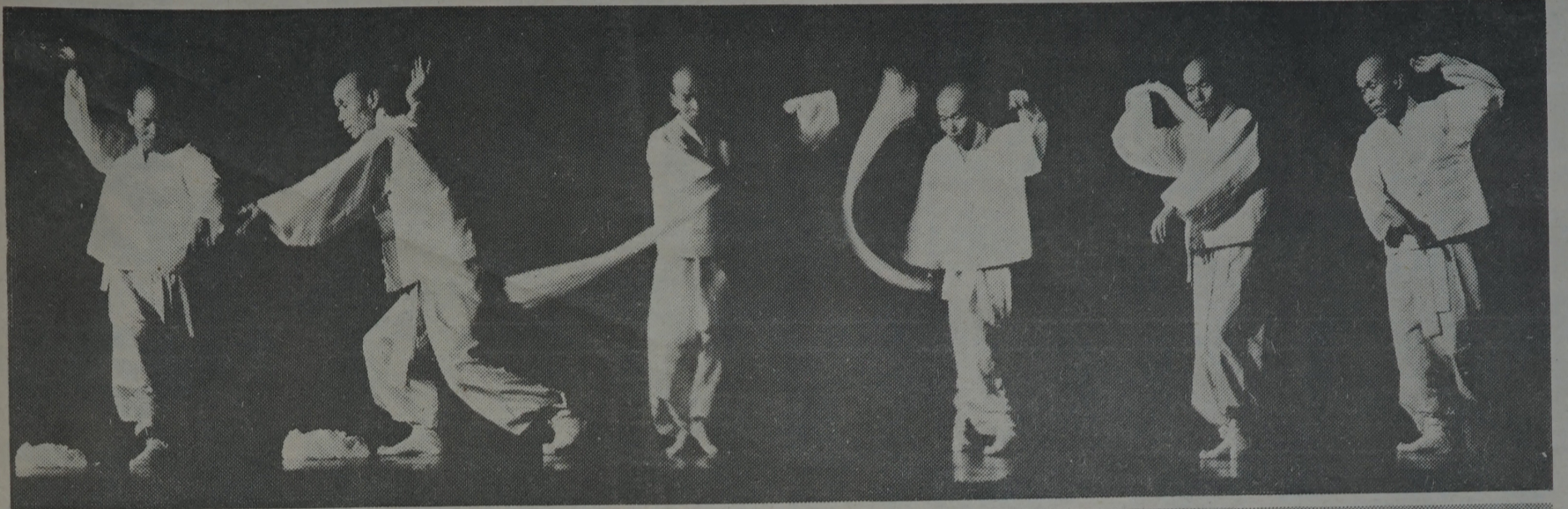


# 週刊 한국

한국일보 하와이지사  
1982년 8월 28일



## 사그러질듯 끊어질듯... 되살아 생동하는 살풀이 무용

인간문화재 제 1호 김천홍옹의 춤사위다. 14세때부터 궁중무용을 익혀온 김옹의 율동은 결코 70노구를 믿기지 않게 한다. 9명의 문하생들을 이끌고 지난 25일 맥킨리 하이스쿨에서 궁중무용과 민속무용등을 선사해 준 김천홍옹은 하와이에서 고전무용을 배우고 있는 수많은 무용학도들로 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.



Center for Korean Studies  
University of Hawai'i at Mānoa